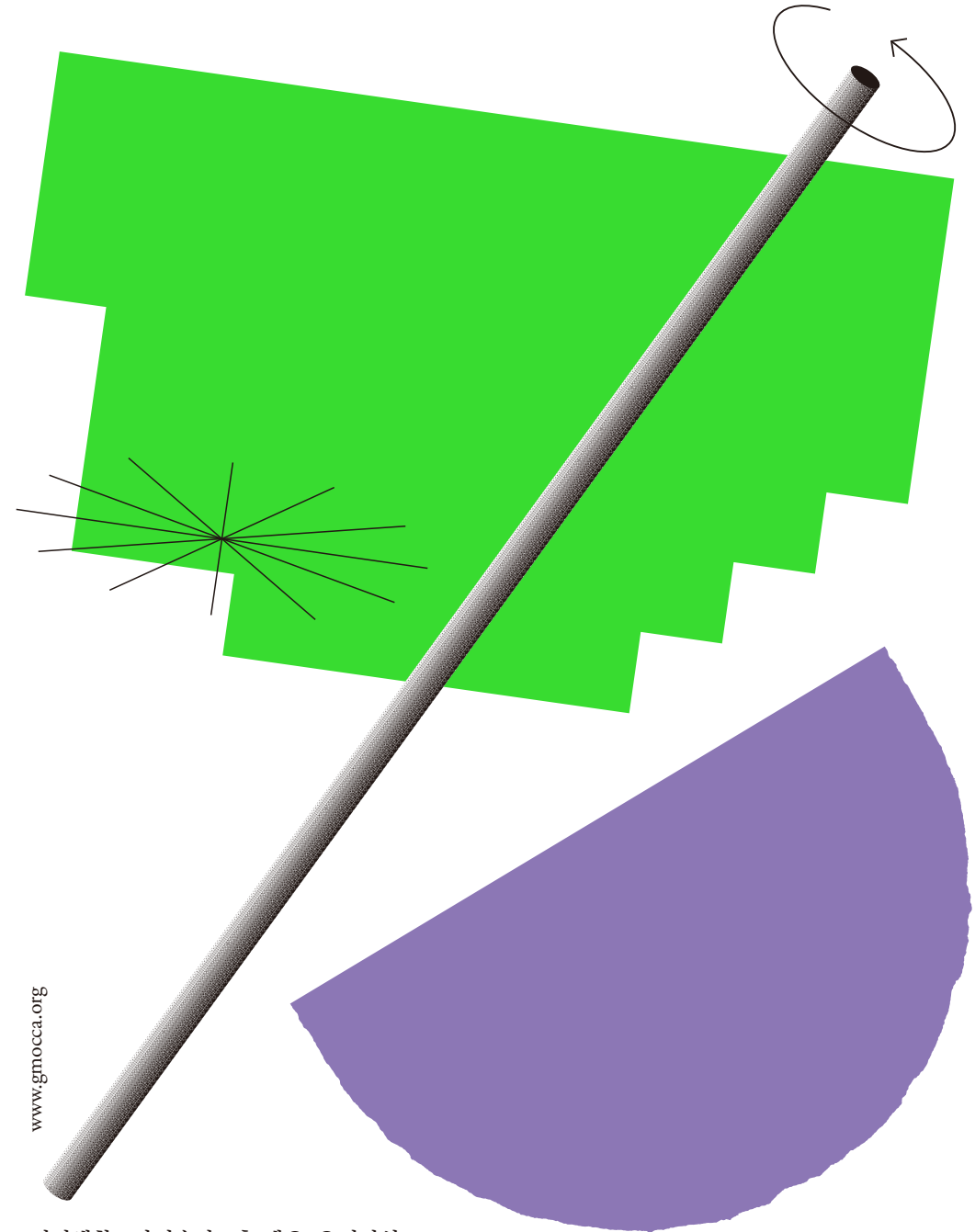


감각의 이중주Ⅱ

한국도자재단
소장품특별전

2023.9.15. - 2024.6.30.



www.gmocca.org

경기생활도자미술관 1층 제①, ②전시실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1st Floor Gallery 1, 2



A Harmony of the Senses

감각의 이중주

The Special Exhibition from
KOCEF Collection

현대도예의 쟁점이 되어 온 공예와 예술, 실용과 조형, 전통과 현대 등 개념의 간극을 넘어서 통합되어 흐르는 오늘날의 기(器, Vessel) 작품 경향을 한국도자재단 소장품 중 비엔날레 국제공모전과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수상작 중심으로 다양한 표현과 공예적 가치를 살펴본다.

기(器, Vessel)는 공예의 근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담아내는 사물이며 예술가의 감각적 사유와 더불어 생활 속에서 시각·촉각·후각·미각 등 사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본래 실생활의 기능적 목적을 토대로 음식을 담거나, 보관하는 등 용도를 위해 만들기 시작했으나 현대도예에서 기(器, Vessel)는 실용적인 쓰임을 담는 그릇 외에도 장식적, 상징적 의미 뿐 아니라 표현 의식의 매체로서 예술형식을 띠고 다양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인류 문명과 역사, 전통에서 탄생하고 도자예술 발전의 시작이 된 '기'를 바라보는 관점은 공예의 맥락에서 해석되고 읽힌다. 오늘날 공예에서 쓰임의 개념은 공예의 상징적인 쓰임과 일상에 존재하는 사물로서의 쓰임에 대한 역할과 개념 확장의 변화로 이뤄지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기'는 현대생활에서 다양한 도자공예 작품들로 나타나 우리 삶의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다.

소장품특별전은 현대 생활 속 도자의 공예 가치와 무한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자리로서 한국도자재단에서 소장한 작품 중 2000년대 이후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과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확보한 현대의 '기' 작품들로 구성하였다. 특히, '기'를 해석한 다양한 작품 중 전형적인 형태, 즉 내부의 공간을 감싸고 바닥을 덮고 서서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지닌 '기', 그 안에서 재료의 특색, 조형성, 표현력, 기능성, 전통에 대한 사유를 담아내어 우리 일상 속에서 친숙하게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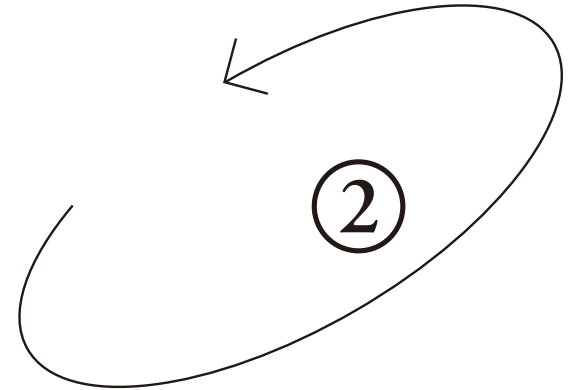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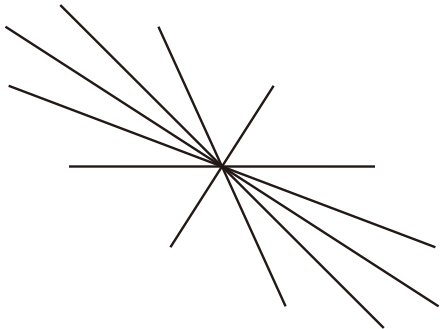
1전시실에서는 생활(실용)과 조형(예술)영역이 모호해지는 상황 속 도자예술의 중요 쟁점을 통해 사회적 대립 갈등 메시지를 던진 국제공모전 생활부문 2005년 대상작인 필립 바드의 <얼굴 모양 용기>와 보딜 만츠의 <Vessel> 작품을 볼 수 있다.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작 이영호의 <백자양각줄무늬마디병>, 한정용의 <백자수반>, 정재효 <분청지두문합> 등 '기'를 바라보는 작가들의 다양한 태도로부터 발현된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 실용과 예술, 표현과 사유를 넘어 상호 조화를 이룬 전시를 만날 수 있다.

2전시실에서는 일상에서 아름다움과 쓰임, 기능으로부터 나온 형태, 디자인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이도 마사노부의 <하나의>, 이지혜의 <파티!파티!>, 스테파니 헤링 에스링어의 <우아한 만찬>과 사이먼 워드의 <그래도 사용되어야 한다> 등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일상생활 속에 자리한 현대의 '기' 역할과 도자예술 문화를 엿볼 수 있다.

한국도자재단의 소장품 수집의 여러 과정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적극 활용한 공모전 수상작을 통해 본 이번 전시가 동시대의 기(器) 작품 안에 내포된 감각의 세계와 우리 삶과 호흡하는 생활도자의 동시대성과 정체성을 만날 수 있는 계기로 다가가길 바란다.

1

2



조선후기 백자의 면치기 기법에서 모티브를 얻은 작품이다. 이 작품은 '백자' 라는 소재에 대한 기술적, 질료적 한계와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작가의 뛰어난 물레실력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원통형 도자기의 풍부한 양감과 구연부(입), 몸통(어깨) 그리고 굽(바닥)으로 이어지는 긴장된 비례, 그리고 대담한 면치기를 통해 단순 간결하면서도 화려한 효과를 자아낸다. 더욱이 '수공성'에 기초한 물레제작 기법, 백자라는 소재 그리고 한국적 특질과 디자인 연구를 고집하는 작가의 고집스러운 태도는 '민족적 정체성(차이)'에 기반한 오늘날의 '도자기'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작품이다.



입체를 이루는 점, 선, 면과 같은 기본구성요소를 연장하거나 제거하여, 주어진 기본형을 새로운 형태로 변환한다. 한 공간 안에 배열되어 수축과 팽창의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의 기물들이 새로운 선과 뜻밖의 공간을 만들어내어 각 개체들의 공간 '사이(Between)'에 '너머(Beyond)'를 섬세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배치된다. 형태뿐 아니라 다양한 조형적 방식을 적용한 기물은 공예개념, 형태, 재료, 기술 등을 담고 있으며 그 이상의 흥미로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덴마크의 주요한 도예가인 한스 뭉크 안데르센의 대표 작품이다. 파스텔 색상의 모자이크 같은 패턴이 특징인데 네리아 게와 유사한 기법으로 유색 포슬린 리본을 차근차근 쌓아 올렸다. 한 단과 다음 단은 꼬리를 물고 이어져 올라가며 서로 연관되어 있고, 기물의 외벽과 내벽의 패턴도 연결되어 있다. 이는 자연이 성장하는 역학 원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다.



색색의 얇은 자기점토 조각들을 이어붙인 이 작품은 섬세하고 아름다운 패턴과 둥그런 사발 모양이 조화를 이룬 작품이다. 부조로 조각된 양각 테두리를 지닌 원추형 형태는 약간 색깔이 있는 자기 조각들로 만들어졌다. 작가에 의하면 구조는 '현대 음악의 음표와 같은' 리드미컬하고 역동적인 실체를 형성하는 채색 도자기를 통해 만들어진다. 그것은 형태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촉각적으로도 감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사발 모양의 사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문질러 닦아서 얇지만 단단한 표면을 형성하고 빛을 흡수해 반투명 도자기가 된다.



한정용 HAN Jeongyong
〈백자수반〉, 한국

2009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대상

넓게 물레 성형한 원통형의 기형을 다각으로
구획한 후 면을 깎아 주었다. 굽을 높게 만들어
기물의 바닥 면에 넓은 공간을 만들었고,
굽 바닥은 일정한 크기를 규칙적으로 도려내어
그곳의 빈 공간이 은근히 드러나도록
의도하였다. 면과 선으로 구획한 기물은 빛에
의해 서로 호응하며 특별함을 나타낸다.
조선백자의 조형 정신을 계승하여 21세기에
융화시키는 새로운 형식으로 재창작된 작품이다.



야우헤니 아드지노찬카 Yauheni ADZINOHANKA
〈산호 꽃병〉, 벨라루스

2003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동상

액체 상태의 점토를 한 방울씩 떨어뜨려 여러
층을 쌓아가는 적하滴下 기법으로 제작한
꽃병이다. 유약을 시유하지 않아 빛을 흡수하는
표면의 질감은 작품의 모티브인 산호를
연상시키며, 섬세하고 장식적인 작품으로
우아하고 화려한 느낌을 준다.



호타테 츠요시 HOTATE Tsuyoshi
〈빛과 그림자〉, 일본

201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우수상

일본의 전통 기법에 바탕을 둔 현대적 작품을
만드는 작가로 '채색 상감(彩陶象嵌)'을 활용하여
흰색과 검은색의 대비 효과를 주고 있다.
번조 후 검게 발색하는 금속을 포함한 흙을
사용하여 모양을 만든다. 그 후 다른 검은
화장토를 스펀지를 사용해 바르고 선각(線刻)
하여 그 틈에 흰 점토를 넣어 상감한다.
번조 후 점토를 갈아내고 하얀색 화장토를 발라
독특한 미감을 드러낸다. 작품 표면에서
스펀지를 사용한 부분, 유약이 없는 부분,
유약을 얇게 뿌린 부분 세 가지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그릇의 형태는 움츠리고 있던
꽃봉오리가 차츰차츰 벌어져 활짝 꽃을 피우는
일련의 과정을 담고 있다.



필립 바드 Philippe BARDE
〈얼굴모양 용기〉, 스위스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대상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은 생활도자와 조형도자 부분을
구분해서 작품을 공모했었다. 본 작품은 2001년
국제공모전을 진행한 이후 최초로
생활도자부문에서 선정된 대상작이다. 도자와
조각의 경계가 점차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작가는
생활과 조형의 영역을 절반씩 점유하고 있는
작품을 선보였다. 도자기의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전통에서 탈피한 비대칭의
조형성을 보여준다. 나누어진 반쪽이 하나의
통일된 전체가 되고 그 결과물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작품의 제작과정은 수많은 대립과
갈등을 안고 있는 현대사회에 메시지를 던지고
있으며, 도자예술의 중요한 쟁점을 통해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이도 마사노부 IDO Masanobu
〈하나의〉, 일본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하나의 세트를 이룬다. 주전자의 손잡이와 주둥이를 결합시켜 형태를 단순하게 만들고 표면을 무늬 없이 흑백의 단색으로 처리해 그릇의 형태로 시선을 모은다. 이색적 조형성과 독특한 기능성을 겸비한 이 작품은 보는 이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헤더 메 에릭슨 Heather Mae ERICKSON
〈텀블러와 큰 사발들이 담긴 커다란 접시〉, 미국

식사라는 의식에 사용하는 용기와 오랜 사용의 역사를 거쳐 각 용기에 부여된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제한적이며 창의성이나 비전도 결핍되어 있다. 식사라는 중요한 의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다. 기능적인 그릇을 만들면서 음식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질 수 있도록 사용자의 눈과 손, 그리고 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여 소통하고자 한다.

안드레아스 슈타인만 Andreas STEINEMANN
〈컬렉션 08〉, 스위스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스위스의 안드레아스 슈타인만은 수 년 전부터 장식적인 생활 그릇에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용기를 창작해왔다. 작가에게 형태와 색채는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컬렉션 08〉은 대칭과 수평에서 완전히 벗어난 비정형의 기물 안팎을 원색과 무채색의 선으로 장식한 작품이다. 자유로운 형태와 색채의 결합으로 동적인 변화가 극대화되고 활발한 미감을 느끼게 한다.

스테파니 헤링 에스링어 Stefanie HERING ESSLINGER
〈우아한 만찬〉, 독일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금상

서양식 테이블웨어인 이 작품은 놀라운 감각으로 논리적이면서 낭만적인 느낌을 준다. 색채를 배제하고 줄무늬 양각과 점무늬 투각 장식만으로 기형미를 살렸다. 단순한 기형과 장식은 은은한 음영 효과를 일으켜 음식을 담는 그릇의 고유한 기능에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하고 시각적, 촉각적 만족을 더하는 효과를 준다. 세계화된 음식 문화의 변화된 식습관에 대해 탐구해 가는 작가의 이 작품은 기술과 현대적 디자인 감각으로 시선을 잡아끈다.



사이먼 워드 Simon WARD
〈그래도 사용되어야 한다〉, 영국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특별상

작가의 작품 주제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일반적인 실용도자에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일이다. 도자에 부착된 손잡이 같은 형태의 목재는 기물을 낮설게 만든다. 이 작품은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물이지만 여기에 어떠한 기능과 목적을 부여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결정할 문제이다. 작가는 끝없이 새로운 형태의 도자기를 내보이며 이 작품을 무엇에 쓸 것인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라고 권한다.



이인수 LEE Insu
〈분청조화 초화문 향아리〉, 한국

2007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공모전 은상

보통 분청향아리의 구조와는 조금 다르게 변형된 형태로서, 몸통은 늘씬하지만, 입술 부분을 'S'자로 뒤틀며 꺾어 올려 전체의 모습은 힘차 보인다. 뭍은 백화장토를 전면에 일정하게 씌우고 아주 빠른 솜씨로 초화문같이 보이는 선과 점을 몇 가닥 쳤는데, 마치 손가락으로 쓱쓱 그은 듯하여 나름대로 서정적 정서를 느끼게 한다. 투명한 유약 밑에 보이는 뭍은 백화장토와 바탕흙과의 질감의 차이를 이 작품이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지만, 바탕흙과 화장토, 유약이 각각 개성적이었다면 질감에서 오는 감동은 한 층 더 높아질 수 있다.



게일 부쉬 Gail BUSCH
〈수로〉, 미국

2009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세 개의 주전자가 쌓여 있는 형태이며, 몸통 전면에 그려진 도자기가 쌓여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테라코타 기법을 사용하여 저온에서 소성된 이 주전자는 두께는 얇지만 부피감과 입체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작품 전체에 반복되는 색상과 문양이 독특한 형태와 함께 조형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안체 라이하르트 Aurje REINHARDT
〈이동할 수 있는 티 세트〉, 독일

2005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공모전 은상

본 작품은 기능적이면서 조형적인 생활도자 작품이다. 찻잔과 받침 세트는 각각 크기가 달라 안으로 완전히 포개지며, 이동용 상자의 조립을 해제하면 쟁반이 된다. 찻잔은 아담한 크기와 형태로 흑백과 청회색의 색감이 은은하게 어울려 차를 마신다는 용도에 시적인 감흥을 더한 수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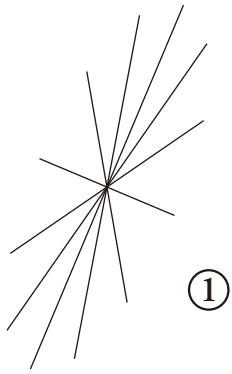


관람시간 화요일-일요일 10:00-18:00
(관람종료 1시간 전 입장마감)

휴관일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휴관)

입장료 무료

문의 경기도 여주시 신록사길 7
경기생활도자미술관
031.887.8250-1



감각의 이중주 II

한국도자재단
소장품특별전

2023.9.15. - 2024.6.30.

Opening Tuesday – Sunday 10:00-18:00
Hours (Last admission at 17:00)

Closed Every Monday
January 1
Lunar New Year's day and Chuseok Holiday
(If a national holiday falls on a Monday,
the museum is closed the next day)

Inquiry Gyeonggi Museum of Ceramic Design
7 Silleuksa-gil, Yeosu-si, Gyeonggi-do
031.887.8250-1

